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현안심의



▲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및 현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269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제269회 임시회를 열어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주요현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는 정보교환 및 응집력 강화를 위한 전체의원 화합행사가, 충청북도의회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08년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新지역발전 선포식 개최,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정책 간담회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충

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내수면 연구조사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공직선거법, 주민소환제도, 의안심사 등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옥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노인장애인복지관, 진천삼수초등학교 급식시설,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 진천 장미수출단지, 청원 품질우수기업(급진화학) 등 도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내

- 회 기 : 2008. 5. 15. ~ 5. 27.(13일간)
- 의사일정

일시	부의안건
5. 15. (14: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8. 5. 15. ~ 5. 27.(13일간) 2.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3.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4. 기타 안건 처리
5. 16. ~ 5. 20.	● 본회의 휴회 ※상임위원회 활동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5. 21. ~ 5. 26.	● 예정특위 및 상임위원회 활동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 시찰
5. 27. (11:00)	● 제2차 본회의 1. 부의 안건 처리 2. 기타 안건 처리안 종합심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 제27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회사무처 소관) • 주요현안 처리	
행정자치위원회	•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건의문 채택 •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 • 주요현안 처리	
교육사회위원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현안 처리	•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현안 처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건설문화위원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주요현안 처리	• 조례안 및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 회 사

지쳐있는 농촌에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 펼쳐시길...



이 기 동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생동감과 푸르름이 더해가는 4월 중순입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현안 사업과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불예방과 영농준비, 소년 체전 등 당당한 도정업무와 교육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은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고 각종 사업도 활기있게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금년 한해도 풍년농사를 위해 각종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리시설을 점검하는 한편, 최근 호남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도에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관심 속에 실시되었던 제18대 총선도 얼마전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의 선거분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화합과 민생안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아울러 우리 충북발전을 위

한 공약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비록 짧은 회기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혁신도시건설 계획대로 추진해야

최 광 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혁신도시건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충북에 커다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진천·음성지역에 한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입주해 이곳에 새로이 건설되는 산업단지와 함께 충북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혁신도시의 전면 재검토를 발표해 우리 도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었음은 물론 전 도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참여정부시절 여야가 합의해 마

련한 정책인 만큼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바로잡아 지방을 골고루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혁신도시 정책처럼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이어지거나 없을까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으고 집행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위성은 현재 충북은 여당 국회의원이 1명뿐인데 도세도 약해 수도권 중심의 여당국회에서 우리의 의지를 관찰시키는데 어려움이 클 것 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충북도는 진천, 음성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지자체와 공조해 우리의 의지 관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송 은 섭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충청권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주임원에 추진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도 6월 중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업의 재검토가 논의되었습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는 본도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고자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조성하여, 세종시와 기업도시를 연계한 충북지역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

로 4월 18일 현재 소유자의 86.7%가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재검토 발표로 혼란을 야기시켜 본 도와 중부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기업도시·혁신도시·행복도시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망설이게 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위화감 조성으로 국론분열이 염려됩니다.

정부는 선지방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국민적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지역 간 갈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중단하기 바라며, 본도에서도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15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혁신도시 문제점 보완 시 생산용지 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편입중인 조합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본도에서 시행자 측과 중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270회 임시회 5월 15일 부터 13일간 열기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제269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 현안을 심사 의결하였다.

제27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08년 5월 15일부터 5월 2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연설과 2008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회부된 안전심사 그리고 주요사업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고, 5월 27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원 2명, 세무사 2명, 공인회계사 2명, 유경험자 2명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간담회 ▶

4월 17일 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2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 현안심사

4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발의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심사



▲ 현지확인 4월 18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는 2008년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8일간 열린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심사를 위한 현지확인과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

였다.

먼저 4월 18일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청주의료원의 특수병동 증축부지 및 대추공원·게이트볼장사업 편입예정 매각 부지에 대한 현지확인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의 건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보고 공유재산관리계

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이번 심사에서 삭제하였으며, 공공시설 편입예정지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조성 예정지인 보은군 내북면 동산리의 현지확인 결과,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어 매각 대상에서 삭제하고, 대추공원 조성 예정지인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의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동의하였다.

그리고 4월 21일 열린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켜 조례안의 주요내용 및 시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토론 후 제·개정 취지를 공감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특히 행정자치위원장이 이필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의원 전원(7명)이 연서한 의원발의 조례안인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충북도민과 공무원이 제안을 통해 지방행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 운

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도민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채택될 경우, 도정에 반영되며 도민의 경우 최고 5백만원, 공무원의 경우 최고 3백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이필용 위원장은 “도민이 직접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안제도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도민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도민과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이 많이 발굴되고, 도정에 적용되어 충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그밖에 비회기기간인 4월 11일부터 4월 12일에는 충청북도 출신의 백령도 해병여단을 방문하여 안보상황 청취와 안보의식 함양 토의·체행 등 안보연찬회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사회위원회 옥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등 도민생활현장 방문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장주식)는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옥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사회 저소득층 지원 및 학교급식환경 실태확인을 위한 현지 확인과 당면현안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의정에 반영하는 노력에 힘썼다.

먼저 옥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와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고 들어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과 농촌의 노인복지서비스 현장을 둘러보며 한국어를 비롯한 우리문화와 풍습, 요리 등 결혼이민자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특히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됨이 없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관련부서에 주문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노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고와 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입안을 주문하며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여 도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해줄길 촉구했다.

또한 진천 삼수초등학교에 대한 현지방문에서는 급식재료선정부터 위생관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식단제공 등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급식환경 마련으로 신뢰받는 학교급식 정착에 노력해 주길 당부했으며, 이어 학생외국어교육원을 방문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외국어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구책 마련을 주문하고 교육시설확충과 우수 원어민교원 확보 등 교육환경향상에 진력해 주길 당부했다.

당면 현안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및 도교육청 교육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확행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하고 지원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문제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책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 현지확인 4월 21일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현지방문을 하고 있다.



▲ 현지확인 옥천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현지방문을 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심사

조례안 심사 ▶
4월 18일 농정본부 소관 충청북도내수면 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윤숙)는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 조례안 심사 및 수출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미수출단지과 중소기업 품질혁신 우수기업을 현지방문하여 의정자료 수집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

4월 18일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민경환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제안된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지사 발의로 제안된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원안가결 하였다.

4월 21일에는 진천군 이월면에 소재한 장미수출단지를 방문하여 진천장미수출단지가 일본으로 국한됐던 수출시장을 지난해 12월부터 러시아로 확대하는 등 수출다변화에 힘써 올해 100만달러 이상 수출목표 달성에 주력하는 것을 격려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진천장미가 세계적인 수출단지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어 우수 중소기업인 청원군 옥산면 (주) 금진화학(대표 김진현)을 방문해 품질관리와 공장 혁신활동을 둘러보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다. 금진화학은 2003년에 품질경영 시스템인증을 획득하였고, 2005년 위생가공보증업체 지정 및 Q마크 인증, 2006년 충북품질경영상(생산혁신상), 2007년 3월 KS인증을 획득하여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2006년, 2007년 연속 금상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향후 지속적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이를 도내 중소기업에 확산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였다.



◀ 현지확인
4월 21일 진천군 이월면 장미수출단지에 대한 현지를 확인하고 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심사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송은섭)는 제2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바이오과학관 운영 조례 제정(안), 충북체육회관 증축 및 보수사업, 2013충주세계조경선수권대회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청남대개방 5주년행사와 신 지역발전 선포식에 참여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였다.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심사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한 홍보여부, 공공기관의 사용의무화를 위해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수정필요성 여부, 제9조의 간접구매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을 하였으며, 환경오염 등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는데 앞으로 친환경상품

의 사용으로 환경오염저감 등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충청북도 바이오과학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간담회에서는 징수료 수준에 맞는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와 바이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데 지금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운영은 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의 경우 도에서 운영비를 계속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될 뿐만 아니라 적자 운영시 운영비 대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청북도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 하였다.

또한 2013세계조경선수권대회 유치추진상황 간담회에서는 국제행사 유치 및 부대시설 준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유치에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간담회 ▶

4월 17일 충청북도 바이오과학관 운영 조례제정안 등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조례안 심사

4월 17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주요처리인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 원안 가결

[제안이유]

• 충청북도 도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규정이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 체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다 활발한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시책을 발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제안의 종류.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 청안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 인사상 특전.
- 청안의 사후관리.

※ 충청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공급 규정 삭제.
-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규모 규정 삭제.

※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 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내용]

- '08. 1. 1. 기구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위 법령 및 현실운영 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혁신담당관실 소관 “해피콜(Happy Call) 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 전략산업팀 소관 “민속공연산업 육성사무”의 위탁대상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정 등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수정가결

[제안이유]

• 청주의료원의 재활치료와 호스피스 등 통합 진료가 요구됨에도 치료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특수병동을 증축하고, 보은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조성하는 대추공원과 게이트볼장 편입예정 부지를 매각하고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을 도의회

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수정내용]

- 청주의료원 특수병동 증축의 건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를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번 심사에서 삭제함.
- 게이트볼장 조성 예정지는 현지 확인 결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매각 대상에서 삭제하고, 대추공원 조성 예정지에 대한 재산매각은 동의함.

※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도내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이용정보 제공확대 및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정함.
-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을 늘리고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

무를 정함 등.

※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안전한 수산물 생산으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소비를 증대하고자 각종 첨단 분석 장비를 구비하였기에, 시험·조사 및 분석 업무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주요내용]

-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 수수료 및 징수방법.
- 수수료 면제.

※ 충청북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품의 생산·폐기 등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 저감은 물론 자원절약에도 기여하는 친환경상품의 보급 확대가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대규모 수요자인 공공기관에서부터 보다 솔선주범해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고 친환경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촉진하는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친환경상품 및 공공기관 범위.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심의·자문은 충청북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서 대행.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등



의원칼럼

지구촌은 지금 곡물자원 전쟁 중 - 수입선 다변화, R&D 통한 생산성 증대시급 -



이 대 원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해마다 이맘때부터 초여름까지 예전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먹을 것이 부족해 소위 보릿고개로 인해 삶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로 풀뿌리나 나무껍질로 끼니를 때우거나 결식과 빚으로 연명하는 등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천수답(天水畓) 형태의 논이 많아 하늘을 의지해 농사를 짓는 일명 하늘바라기 논으로 봄에는 기쁨과 여름에는 흉수와 싸워야하는 다중

고(多重苦)의 피해로 인해 굶주림이 심했고, 근래에 들어서면서 치수와 영농기법의 선진화로 인해 연례행사처럼 찾아오는 보릿고개는 이제 사전에서나 찾아야하는 낯선 단어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최근 쌀 보리 옥수수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원유와 함께 폭등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위기에 이은 또 하나의 위기인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가뜰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곡물 가격이 작년 하반기 이후 50% 이상 상승하였고 소매가 역시 30여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하니 국토면적이 좁고 천연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에게 식용과 사료용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한창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식량이 부족한 원인으로 2005년 이후 유럽의 흉작과 후주의 가

뭉치속, 중국·인도 경제발전에 따른 식량 소비의 증가, 기후 온난화와 전 세계적인 농업투자 감소, 고유가로 인한 바이오 연료의 수요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곡물이 남아도는 일부 국가들이 식량 비축량에 대한 통제수위를 높인 반면 곡물 수입국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대처에 나서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돼 가격 폭등세가 지속되는 등 국가간 식량민족주의가 그 주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에 곡물 수출국들이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기인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수출량을 줄이면 국가간 곡물 유통의 흐름이 왜곡되었고 일부 투기세력들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함으로써 식량 전쟁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쌀 시세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국내 쌀값은

보합수준으로 이는 %에 달하는 국내 쌀 자급률 덕분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다른 곡물은 OECD 29개 국가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이는 사료 값 인상으로 이어져 축산 농가 특히 양돈농가의 경영난이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을 경제적·물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해외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등 현지 직접재배나 산지 곡물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수입, 선물거래소를 통한 안정적 물량 확보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해주, 몽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산지 직접재배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 보호와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투자를 통하여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곡물자원 전쟁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의원칼럼

충청북도 지역축제의 실태와 문제점



최 광 옥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 지역민 및 지역고유의 특성을 확보한 축제를 만들어야

일반적인 지역축제가 비교적 성공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는 세가지이다. 바로 지역고유의 전통에 근거할 때와 자연발생적인 일정한 기간 동안 성과를 내는 적당한 인력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을단위의 축제가 차츰 규모가 커지고 입소문이 나서 오늘에 이르는 발전단계를 거칠 때이다. 충북지역 축제의 현황은 전국축제 1,176개 중 5.8%에 해당하는 68개로 13개의 자치단체가 평균적으로 5.2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중에서 처음에 언급한 조건을 충족하는 축

청북도의 지역축제는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까? 지역고유의 전통, 자연발생적인 일정한 기간 동안의 성과, 마을단위의 축제, 이것이 축제의 본질로써 자리매김한다면 충북은 어떤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름만 거창한 '국제 축제', '세계 축제'라는 명칭을 확대하여 국제적인 것을 넘어 세계화를 외치는 축제의 양상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기관의 야심찬 기획에 의해 어느 날 제작되어진 축제가 주류를 이루는 것은 지역민 또는 관광객을 고려하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적 성공여부를 외적으로 평가하는데 급급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해보고 기관 자체 내에서만 만족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지역축제의 성공여부는 축제가 지역민 및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확보했을 때 평가를 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축제로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축제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지역축제 격언은 경제논리를 우선하여 지

역현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축제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짐을 염두에 두는 기획만이 유효하며 지역경쟁력을 강조하여 지역주민을 제외하는 전국적인 소재주의가 반드시 축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 근원적인 차단체제에서 '자율'에 근거한 평가체제를 갖춘 축제가 되어야

지역축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행정기관이다. 단체기관의 의전과 그에 동원된 주민들을 보기 마련이고 행사기간은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조정되기 일쑤이다. 행사 기획서와 예산은 담당공무원의 협조 없이는 어떤 형태의 지원도 쉽게 교부되는 일이 없다. 심지어는 축제의 평가조차 행정기관과 연관된 단체나 협회 등이 용역을 맡아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축제는 실패하는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를 비롯하여 대형화 된 축제가 실패한 예를 찾기가 거의 어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공을 증명하는 다양한 방식 즉 사람이 적으면 내용적으로 성공을 증명하는, 내용이 결여되면 학생 등 단체관람객을 동원하여 인원 부풀리기 같은 각종 기술들이 작동함을 의미할 것이다. 다양한 축제 행정단위가 만들어 낸 축제를 돈으로 환산하는 기술은 결국 '지역이미지 제고'와 같은 비계량적인 문제를 돈으로 환산해 내기도 한다. 더구나 실수의 인정은 공직사회에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니 축제의 실패는 있을 수 없다. 대외적 성과를 필연적으로 내야하는 구조로 설계되지 않는 '자율'에 근거한 축제에서 우량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실패를 인정함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시행착오 극복은 축제의 실패가 근원적으로 차단된 형태로는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축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의 '팔걸이 원칙' 이행과 지역축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히 자체 내 평가로 객관적인 사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멈추고 외부의 입장에서 정당히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자율에 근거한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담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



▲ 충청북도의회 담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4월 17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 관계관으로부터 “담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3도(충북, 강원, 경북) 공동용역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

건강보감

갑상선기능 항진증의 한방치료

주위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이 종종 볼 수 있다. 대개 남자보다는 20~40세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증상은 더운 것을 싫어하고, 땀이 많이 나며,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피로가 쉽게 오고, 손이 떨리고 여위며, 여

성의 경우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안구돌출, 혀와 손이 떨림, 빈맥, 맥압 증대, 기초대사율 증대가 나타난다.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대개 갑상선자체의 원인에 의해 지나치게 갑상선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거나

갑상선에 염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밖에 뇌하수체나 시상하부의 이상에 의해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킬 때 항진증이 나타나며, 자세한 검사는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갑상선 질환 중 특별히 그레이브스병 - 바세도우씨병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미탄성 갑상선종을 동반한 갑상선기능 항진증, 안병증, 피부병증 등의 주요 특성을 가진다. 이 증상이 나타나지는 것은 아니고 갑상선종, 안구돌출증, 다리나 발등부위에 부종이 한 두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한의학의 관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주로 화병의 범주에서 설명할 수 있다. 결혼이나 이사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와 같은 변동 상황이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 많이 발병한다.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고 참음성이 많거나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도 발병률이 높다. 주위에 증증환자나 장기 환자가 있거나 고압적이고 이해심이 부족한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발병률이 높다.

치료는 초기부터 한방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주로 침과 한약복용을 통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침치료는 증상에 따라 간화(肝火), 심화(心火) 등

으로 나누어 해당 경락의 화혈(火穴)을 다스리면 마음이 안정되고 답답하던 마음이 소통되는 느낌이 들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약물요법은 크게 체질에 따라 세가지 패턴으로 나누어 치료하게 된다.

1. 목의 갑상선이 종대되고 안구가 돌출되며 가슴이 번거롭고 화를 잘 내며 더운 것을 싫어하고 땀이 저절로 나며 얼굴이 뜨거워지고 입이 쓰며 목이 마르고 성질이 조급해지며 먹어도 금방 배고파지고 여위며 손이 떨린다. 설질은 붉고 설태가 황색이고 맥이 긴장되면서 빠르다. (陰虛火旺 - 소양인)
2. 목의 갑상선이 종대되고 안구가 돌출되며 더운 것을 싫어하고 땀이 많이 나며 몸이 여위고 입안과 목이 마르며 정신이 피로하고 무력하다. 대변이 묽고 설질이 붉으며 설태가 거의 없고 맥이 가늘면서 빠르다. (氣陰兩虛 - 소음인)
3. 목의 갑상선이 종대되고 단단해지며 안구가 돌출되고 목에 가래가 막히며 연하곤란이 생긴다. 설질이 암적색이며 설태가 하얗게 두툼하게 끼고 맥이 빠르다.

김태영 (백제한의원장)

<말뚝이 세상말이>

산타마리아의 鍾과 母性 결핍사화

전에는 뒷골목 밤길이 연약한 여자들이나 어린 청소년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어둠에 얼굴을 가리고 신분을 감춘 낯지기 강도가 두렵고 치안이 두렵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밤도 아닌 벌건 대낮에 만인의 발길이 오가는 대로도 안심할 수 없는 공포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야말로 전전긍긍이다. 특히 들려오는 ‘어린이 납치·유괴사건’이 남의 일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납치·유괴 또는 행방불명 됐던 어린이들이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극히 드문 사례고 대부분 미궁에 빠지거나 참혹한 죽음을 당해 부모 가슴에 못을 박고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용케 잡은 범인의 면모를 보면 대부분이 낮익은 이웃 어른이요, 평소에도 별다른 특이점이 드러나지 않던 사람인데다 납치 목적이나 대상도 현금요구를

위한 부잣집 자녀에 한정되지 않고 성폭행 등을 목적으로 한 불특정 다수의 어린이로 확산되고 있다. 부자가 아니라 태평할 수 없고 안면이 있다고 방심할 수 없으며 평범한 이웃이라고 믿을 수 없는 형편이니 내 자녀보호를 위해선 전쟁터보다 무서운 공포를 감내해야 하는 세상이 됐다.

때문에 학교는 때 아닌 납치예방교육에 머리를 싸매고 부모는 하룻길 자녀 보호로 초긴장이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에 진땀을 빼면서도 칭찬보다 원성에 귀가 아플 지경이다.

잡힌 범인들의 성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모성결핍의 전력이 있거나 여성에 대한 적대감, 성도착 등의 인격적 결함이 잠재되어 있다고 한다. 부모의 이혼이나 가족해체로 비정상적인 성장과정을 보낸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따뜻한 모성애가 개인의 인격형성과 나아가 사회의 안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이혼율은 갈수록 높아간다. 가정의 실직, 파산 등으로 가족해체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부족한 기존의 보호시설로는 감당 못할 만큼 영·유아의 유기사례도 늘고 있다. 조반석죽도 어렵던 가난한 시절보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운운하는 풍요로운 시대에 이혼사례가 늘어나고 자녀 유기가 늘어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인가?

결혼연령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책임감의 결여, 이기심 만연 등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부부탄생이 원인중의 하나가 아닐까. 게다가 매일 TV화면에 비추는 연속극의 주인공들이 진지성이란 전혀 없는 뻔뻔한 얼굴로 결혼과 이혼을 장난처럼 지껄이는가하면 어느 연속극은 극중의 부자 2대가 조강지처를 버린 채 첩을 끌어안고 산다. 어쩌면 이런 부분이 이혼율 증가를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싶다.

아무튼 가정의 파탄은 성장기 자녀에게 모성결핍으로 인한 정서불안과 인격장애를 안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인간의 정서를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는 데는 모성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 하물며 인격형성 과정에 있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말해 무엇 하랴.

이탈리아에는 ‘산타 마리아’라는 이름의 사원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奉獻)하는 사원’이라는 뜻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들 사원에서는 매일 석양 무렵의 일정한 시각에 종을 울린다. 바로 ‘산타

마리아의 종’인 것이다.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정다운 위안과 함께 평안을 느끼며 ‘영원한 모성의 부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길 위에 방랑하는 자, 집을 뛰쳐나간 탕아에게는 어서 돌아오라는 어머니의 부름소리, 몸이 병든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의지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로 들린다. 석양빛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며 ‘산타 마리아의 종소리’, ‘모성의 따뜻한 부름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이들은 하루의 무사함에 감사하거나 혹은 잘못을 회개하며 평안을 얻는다. 하루를 마침에 죄 된 일은 씻어 남기지 않고 죄 된 일을 생각지 않으니 그 마음속에 평화가 깃드는 건 자명한 일.

모성은 위대하고 누구에게나 자비롭다. 안방을 따뜻이 담고 온 가족을 바로 세우며 사회를 평온하게 감싸는 것이 모성의 힘이다. ‘산타 마리아의 종’처럼 방랑자와 탕아, 병든 자와 상처 입은 자를 보듬어 안는 모성이 가정을 채울 때 두려움 없는 세상, 아이들이 맘 놓고 자라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련만 실덕(失德)한 모성을 대리할 사회공동체가 절실한 때다.

안수길 (소설가·청주문인협회 회장)

의원동정



◀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4월 12일 청주시 운천동에서 열린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대안학교 '새날학교' 개교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4월 30일 생활체육 2008년도 1차 종목별 회장단 회의에 참석, 주요 행사 계획 및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추진상황 청취



◀ 김환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4월 22일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신 지역발전선포식'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범운 의원
(단양 제2선거구)

4월 22일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신 지역발전선포식'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박종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4월 25일 청원군민회관에서 열린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4월 25일 ~ 26일 보은읍 중곡리 동학공원에서 열린 보은동학유적지 건기대회에 참석, 행사주관 및 관계자 격려



◀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5월 3일 청주 무심천에서 열린 행복충북운동도민참여 및 화합대회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5월 1일 영동 난계국악단에서 열린 '신 지역발전선포식'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4월 15일 옥천읍 명가식당에서 열린 옥천군 기업인협의회 총회에 참석, 회의주관 및 관계자 격려



◀ 김화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4월 24일 단양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08년도 전국 중·고연맹 배구대회에 참석, 선수단 격려 및 관광 홍보활동



◀ 연만흠 의원
(증평 제2선거구)

4월 28일 증평군 도안면사무소에서 열린 도안지역 기관장모임인 연암회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최광옥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4월 17일 ~ 1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주부교실 지도자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4월 23일 보은군 예술회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4월 23일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이종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4월 23일 제천-청주일원에서 열린 청풍호 이름찾아 전국 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최미애 의원
(비례대표 · 통합신당)

4월 28일 충북여성민우회 부설 한부모가족센터 개소식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5월 1일 충북대 개신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18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에 참석, 참가자 및 관계자 격려



◀ 최재욱 의원
(증평 제1선거구)

4월 25일 증평읍사무소에서 열린 새마을운동 38주년 기념식에 참석, 행복충북운동 실천 다짐 및 씨앗나누기 캠페인



◀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4월 22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마을 제2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4월 27일 옥천군 청산면에서 열린 청산중학교 총동문회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4월 16일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의 균형발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



◀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4월 14일 ~ 18일 중국 길림성에서 열린 우호교류 협약식에 참석, 청주 공항활성화 · 관광교류 등 협력방안 협의



◀ 이필웅 의원
(음성 제2선거구)

4월 14일 ~ 18일 중국 길림성에서 열린 우호교류 협약식에 참석, 청주 공항활성화 · 관광교류 등 협력방안 협의



◀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5월 4일 진천읍 진천중학교에서 열린 진천중학교 총동문회에 참석, 여론수렴 및 관계자 격려



◀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4월 2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재경진천군민회에 참석, 환담 및 축하



◀ 강태원 의원
(비례대표 · 한나라당)

5월 15일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21C 청풍아카데미에 참석, 도민 의견수렴 및 관계자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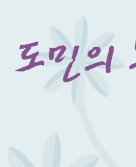
◀ 심흥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5월 2일 충주체육관 광장에서 열린 충주시 의용소방기능경연대회에 참석, 축하 및 관계자 격려



◀ 이언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4월 1일 ~ 30일 충주지역 초 · 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꾸미기 운동 지원 및 격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